



스카우트불교연맹이 4월 13일 수원 용주사 일대에서 개최한 어린이청소년효행템플야영에서 200여 명의 아이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참가학생들이 탁본한 부모은중경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부모은중경비를 살펴보는 아이들

정조 효심과 부처님 가르침, 동심에 깃들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4월 13일 제1회 어린이청소년효행템플야영 개최

보경 스님의 <부모은중경> 강설에 감명 받아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에서 수원 화성의 용릉으로 옮긴 조선 제22대 왕 정조는 11년 간 12차례나 부친 묘소를 참배하러 수원으로 행차했다. 정조는 용릉을 봉향하는 능찰 용주사를 건립하고 한문 언문 그림으로 제작한 부모은중경 목판본을 시주해 백성의 효심을 일깨우는 거울로 삼도록 했다.

200여년이 지난 4월 13일 청소년들이 옛 정조대왕의 효사상을 되새기기 위해 용주사에 모였다. 이날 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송묵·조계종 포교부장)과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한 '어린이청소년 효행템플야영'에는 청계사, 동원정사, 범어사, 정각사, 약사사, 흥법사, 용주사, 불광사 등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조의 효심을 배우기 위해 1박 2일간 용주사와 용릉(사도세자의 능) 일대에서 효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화이팅! 아이스크림 주세요! 화이팅! 아이스크림 주세요!"

비바람을 막아줄 텐트 설치가 끝난 오후 2시 경부터 입재식이 진행됐다. 목소리가 커야 간식을 먹는다는 연맹장 송묵 스님의

재미있는 입재사에 이어 아이들의 환찬 구호 속에 이날 프로그램은 시작했다.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정조대왕이 현몽원을 참배한 후 송충이가 숲을 갹아 먹는 것을 보며 '아버님이 비통하게 사신 것도 마음 아픈데 어찌 너희들이 괴롭히냐'며 이빨로 깨물어 죽였다. 이후 이 일대에는 송충이를 찾아볼 수 없으니 대단한

수원 용주사에서 캠핑하며 각종 프로그램 체험...전국 200여 명 참여 문화탐방·부모은중경 탁본 하며 효심 키워...눈물 글썽이기도

그 효심을 느낄 수 있다"며 "용주사에서 템플스테이, 캠핑을 친구들과 함께 하며 지혜, 덕성, 체력과 함께 배려, 양보, 봉사 정신을 익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재식에 이어 아이들은 15개 조로 나뉘어 용주사 곳곳을 둘러보며 문화해설사들의 설명에 사뭇 진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용주사에 들어오기 전에 문이 있었어요. 이 문이 무엇일까요?"

"홍살문이에요. 그런데 왜 문 색이 붉은색

이예요?"

"용주사는 돌아가신 사도세자를 모시기 위한 사찰이에요. 그래서 능이나 사당에 있는 홍살문이 임구에 있어요. 붉은색은 잠귀 신들이 두려워 한다는 팔죽색이예요."

산들거리는 바람 속에 아이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여기있는 탐이 바로 부모은중경탑이에요. 하단을 보면 한글과 그림으로 부모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어요. 정조대왕은 효사상이 널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은중경을 이곳에서 펴냈답니다."

아이들은 부모은중경탑 부조를 설명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다. 문화탐방을 끝마친 아이들은 용주사 박물관에서 부모은중경 탁본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탁본한 도화지 각자의 낙관을 찍으며 밝게 웃었다.

"어머니께서 캠프에 오기 전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용주사가 정조의 효도로 인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셨는데 부모님 생각이 나요."

오랜만에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친

구들과 함께 야영을 하기 위해 올라온 김성의 용주사대 대원(13)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평소 친구들과 파라미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용주사에서 불교스카우트 캠프가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5시간이 걸려 부산에서 올라온 정현윤범어 수효대 대원(16·급정중)은 "즐겁게 놀고 많이 배워가겠다"며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다.

스카우트 단원들은 용주사 문화탐방과 부모은중경 탁본에 이어 청소년마음거울 108배와 저녁예불, 선지식과의 '효' 주제 대화, 부모님께 편지 쓰기 등을 진행했다. 또 캠프파이어와 야외취사 등에서 조별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자립심을 키우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 둘째날에는 용건릉 숲길걷기와 명상 등도 진행됐다.

여택진 불교스카우트 연맹 지도교사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효에 대한 생각을 한번씩 더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캠핑기간 내내 화창한 날씨와 바람이 아이들의 마음 속의 작은 티끌까지 날려버리는 듯 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는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을까.

수원 용주사=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처님 가치관을”

스카우트불교연맹 훈육위원 명원 스님

“청소년기는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불교스카우트 활동은 자연환경과 불교문화 안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이타심과 협동정신을 함양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날 효행 템플야영을 지도한 스카우트불교연맹 훈육교사 명원 스님(사진)은 불교스카우트 활동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명원 스님은 “스카우트는 ‘행’을 중요시 하는데 이는 곧 불교정신”이라며 “포교 일환으로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불교의 정신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9일 발족한 스카우트불교연맹은 현재 35개 사찰과 182명의 지도자 및 1174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명원 스님은 “향후 청소년 인성교육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우트불교연맹은 청소년 인성교



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월 27-29일 여름불교학교와 병행해 포교원에서 진행하는 정전 60주년 행사에 동참할 계획이다. 스카우트불교연맹은 이 시기 어린이청소년세계평화대회 ‘평화와 통일을 꿈꾸다’를 열고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세계평화대회에서는 30리 걷기, 병영체험, 백일장, 힐링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명원 스님은 “불교의 미래는 결국 불교 가치관을 갖고 활동하는 아이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알기 쉬운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 |
|--------|----------------------------|--|
|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구포1동 73-13번지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